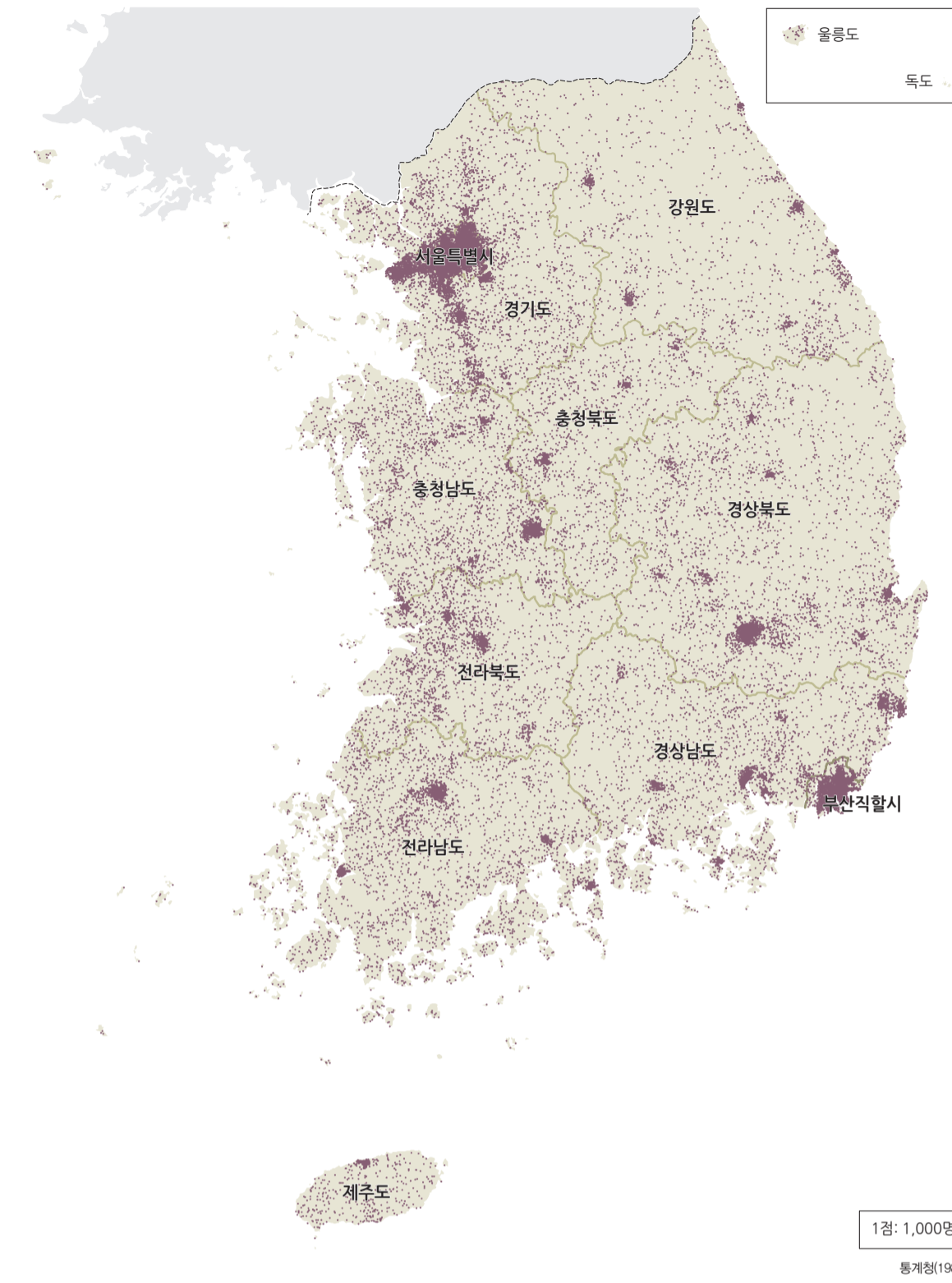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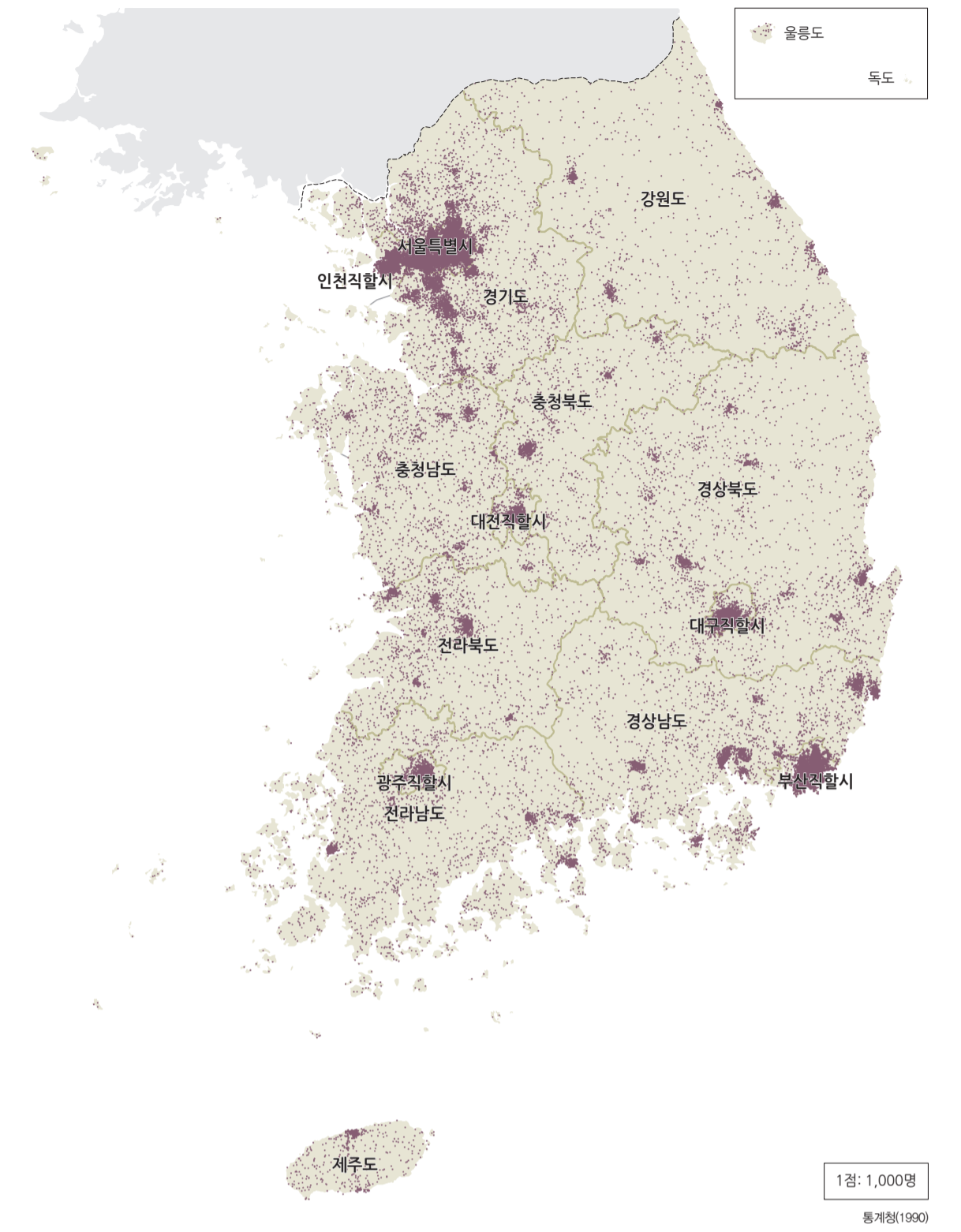
인구와 정주 체계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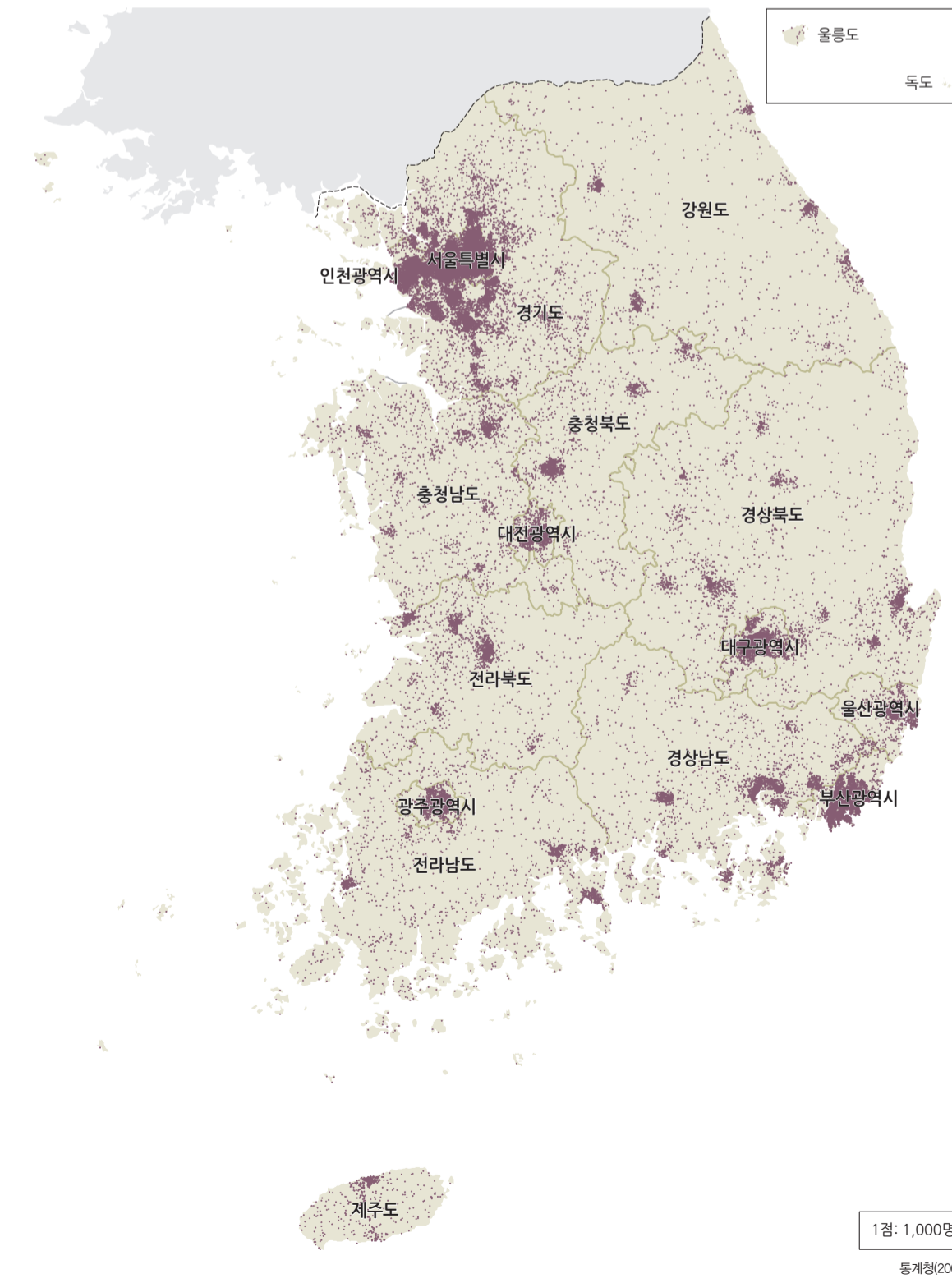
1980년의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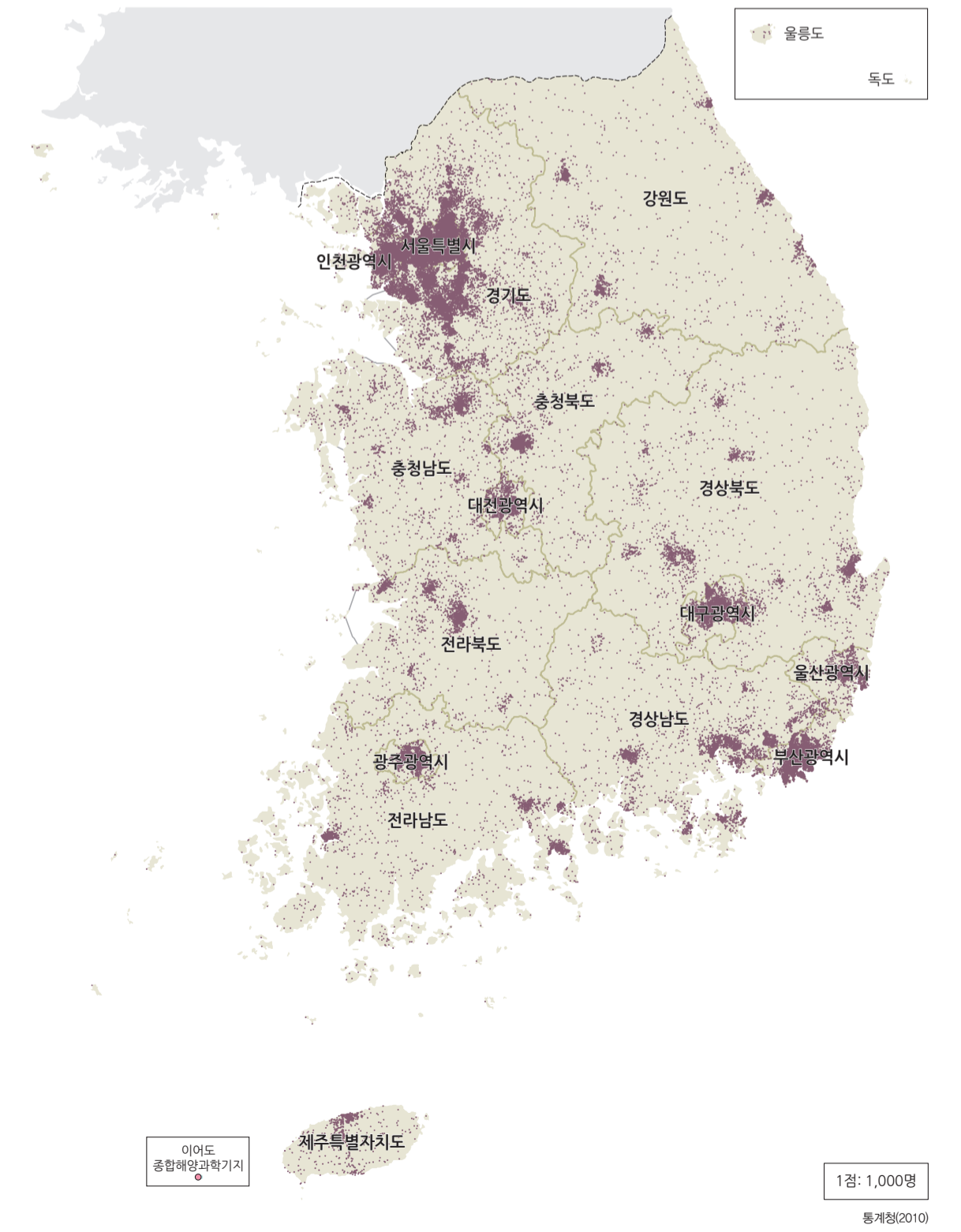
1990년의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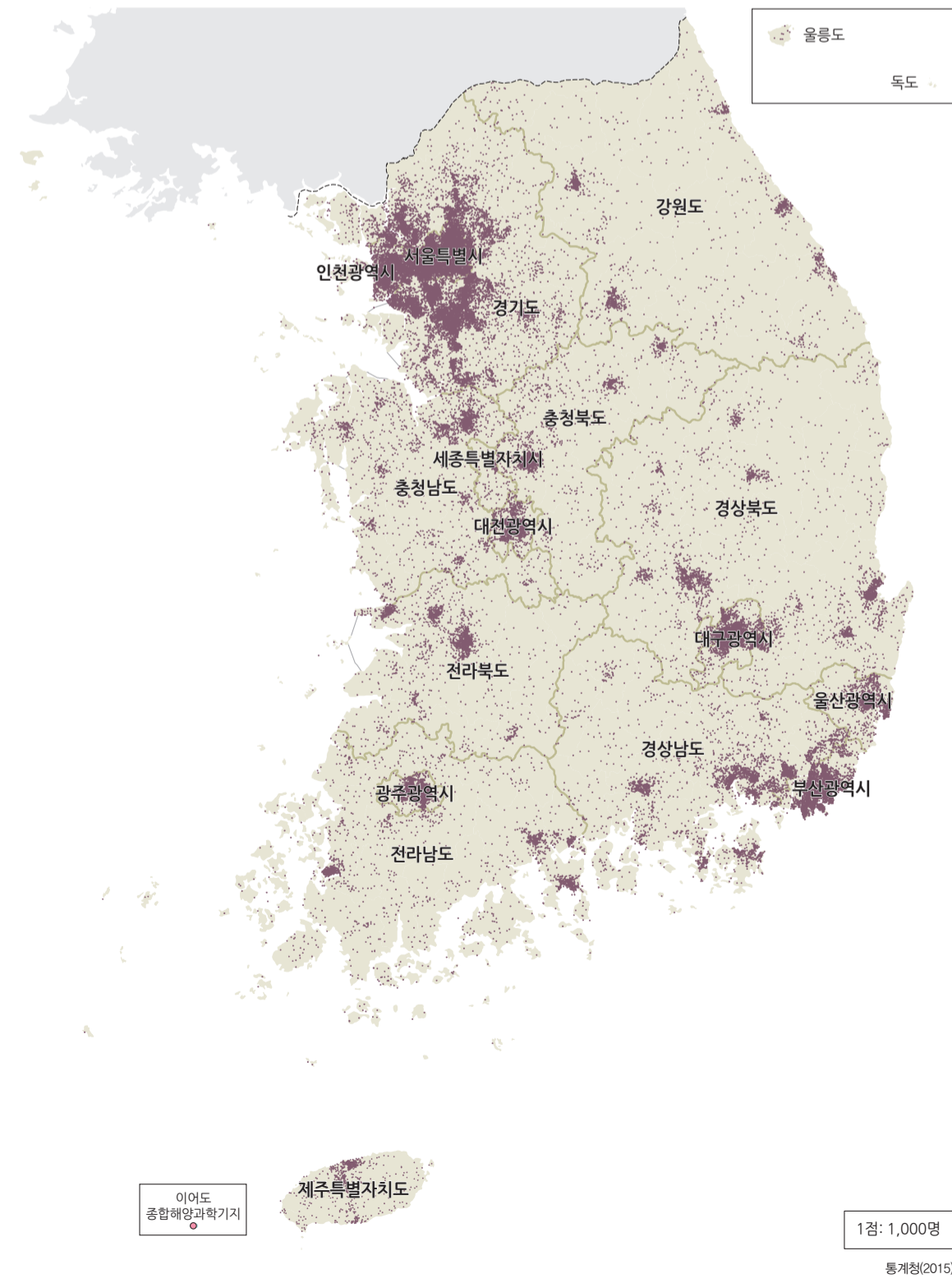
2000년의 인구 분포



2010년의 인구 분포



2015년의 인구 분포



인구는 그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간적 특성의 집약체이다. 한 나라나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구의 분포, 구조, 이동 등의 현상을 들 수 있다. 먼저 인구 분포는 특정 시점의 인구의 지역별 규모를 나타낸다. 또한 인구 구조는 연령, 성, 소득, 가구 구성 등 특성별 인구 구성을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끝으로 인구 이동은 특정 시기 동안의 지역 간 인구의 이동을 말한다. 인구 분포의 변화는 인구의 자연적 증감과 인구 이동에 의해 결정된다. 인구의 자연적 증감이 합계 출산율과 사망률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 인구 이동은 해당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간적 특성의 지리적 분포에 영향을 받는다. 즉, 그러한 요인들은 지역별로 인구 유출과 인구 유입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그 결과로 인구 이동이라는 사회 공간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인구 이동에는 전입과 전출의 국내 이동과 이주의 국제 이동으로 구분되며, 국내 이동은 다시 도농 간, 도시 간, 농촌 간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구 이동에는 경제적, 인구학적, 지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점묘도로 표현된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를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인구의 과밀·과소 패턴이 뚜렷이 나타난다. 특히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인구 분포 패턴에서 인구의 전체적인 성장·감소와 지역별 성장·감소 현상이 확인된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인구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결국 인구 분포는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간적 특성의 집약체인 것이다.



농촌 지역



도시 지역

인구 구조: 저출산·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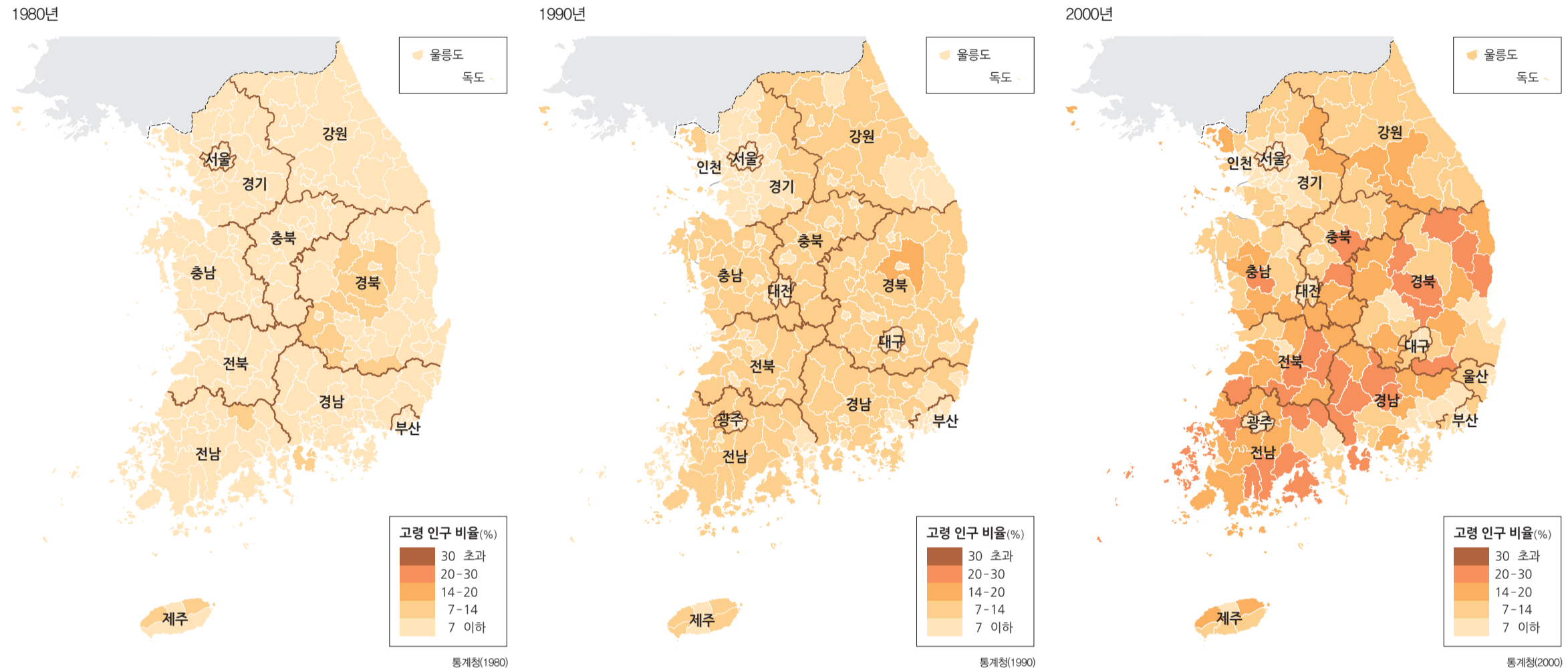
저출산·고령화는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0년에 고령 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0년에는 개별 시도 차원에서 모든 지역에 고령 인구 비율이 7%가 넘게 되었다. 2017년 고령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도 영향을 주었지만, 출산을 감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71

년 한해 태어난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을 넘어 최고를 기록하던 것에서 이제 30만 명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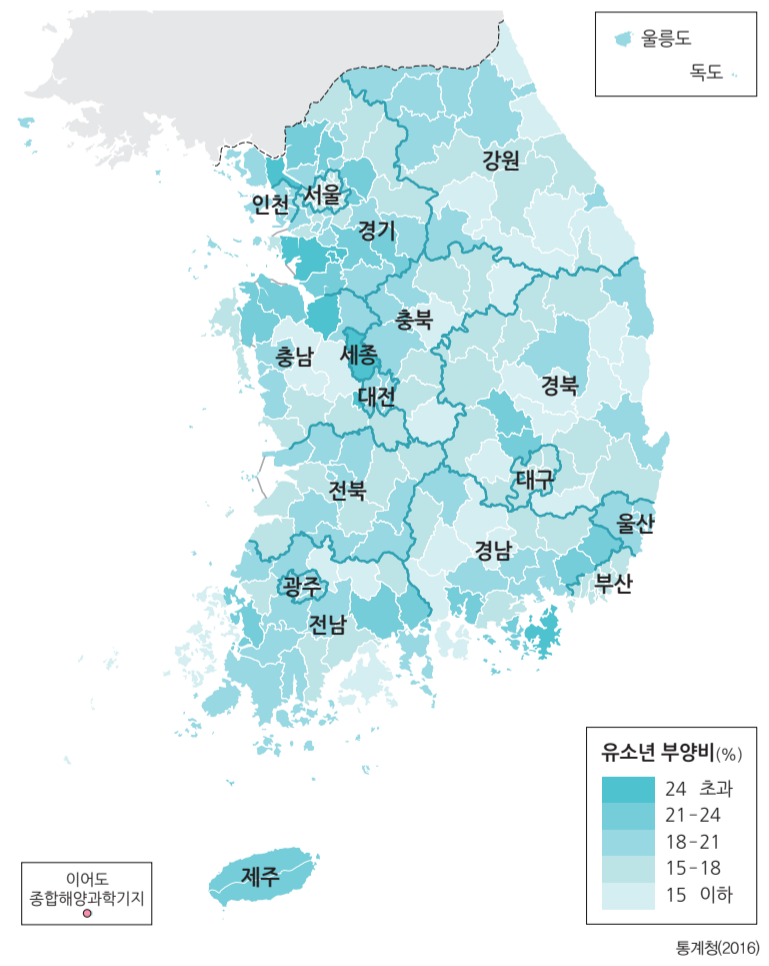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1970년대 초반 4.5 정도에서부터 하락하여 1980년대 초반 인구 유지 기준인 2.1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OECD 기준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이 2.1 이하면 '저출산'으

로, 1.3 이하면 '초저출산'으로 분류된다. 합계 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감소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는데, 2002년부터 초저출산(합계 출산율 1.3명 미만) 상태에 있고 2018년 1.0이 무너지 0.98을 기록했다. 이러한 변화는 연령별 인구 구조 변화에 반영되어 인구 피라미드가 삼각형에서 종형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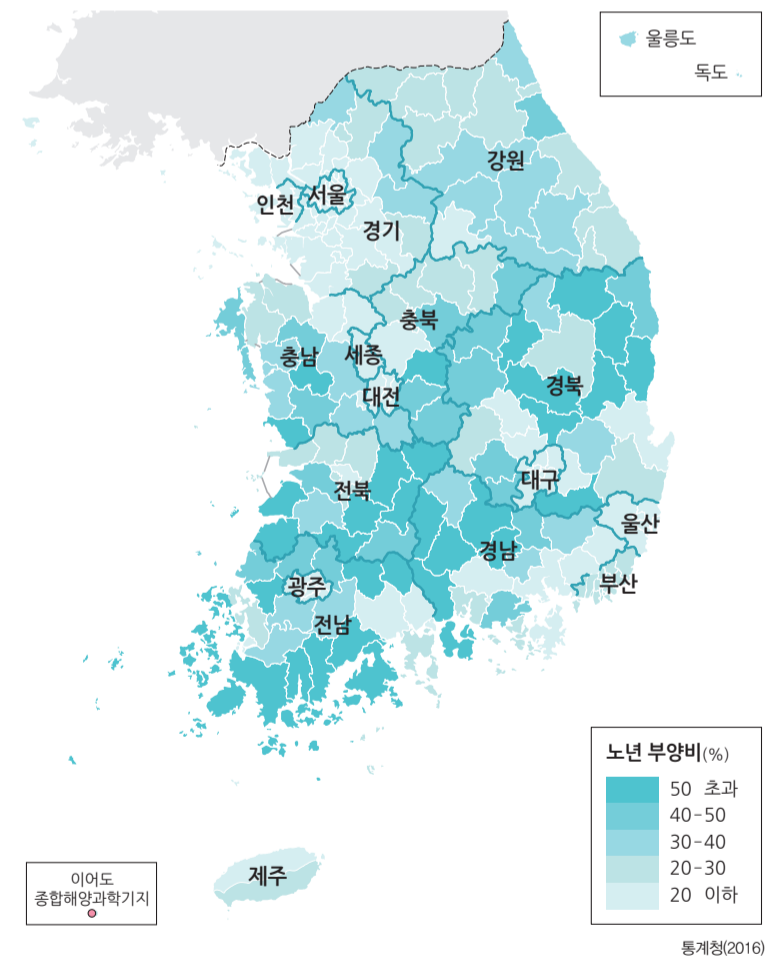
고령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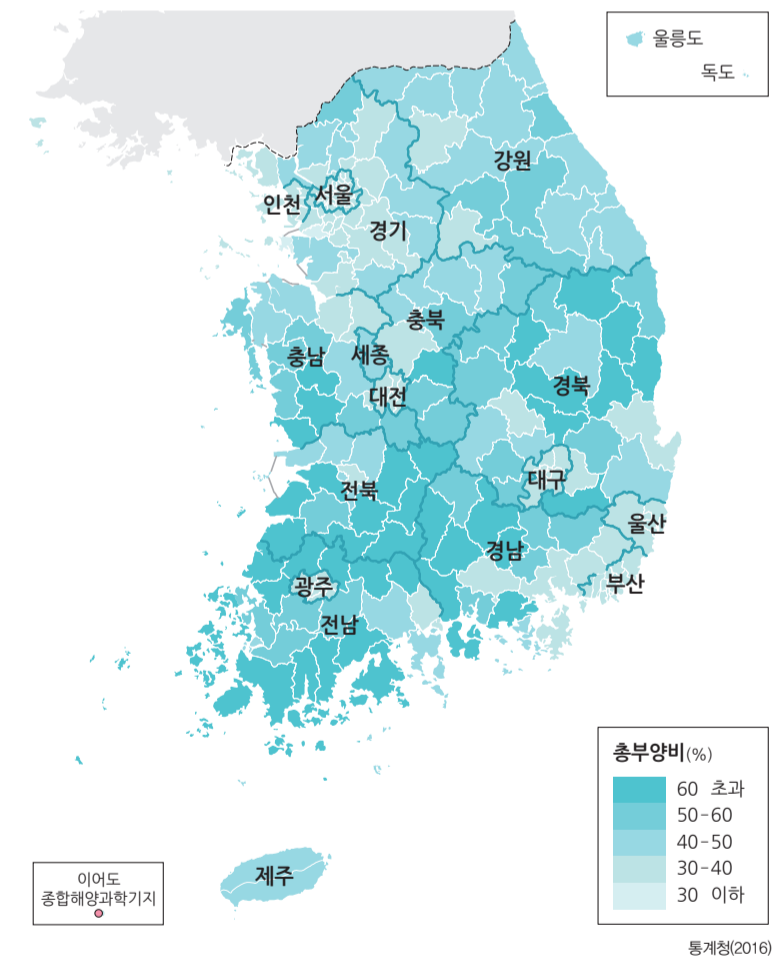
유소년 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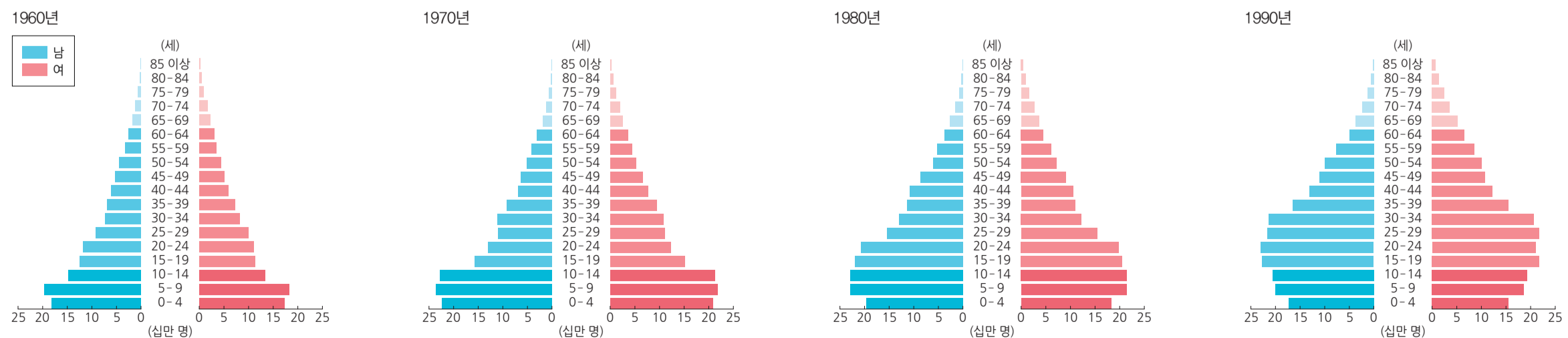
노년 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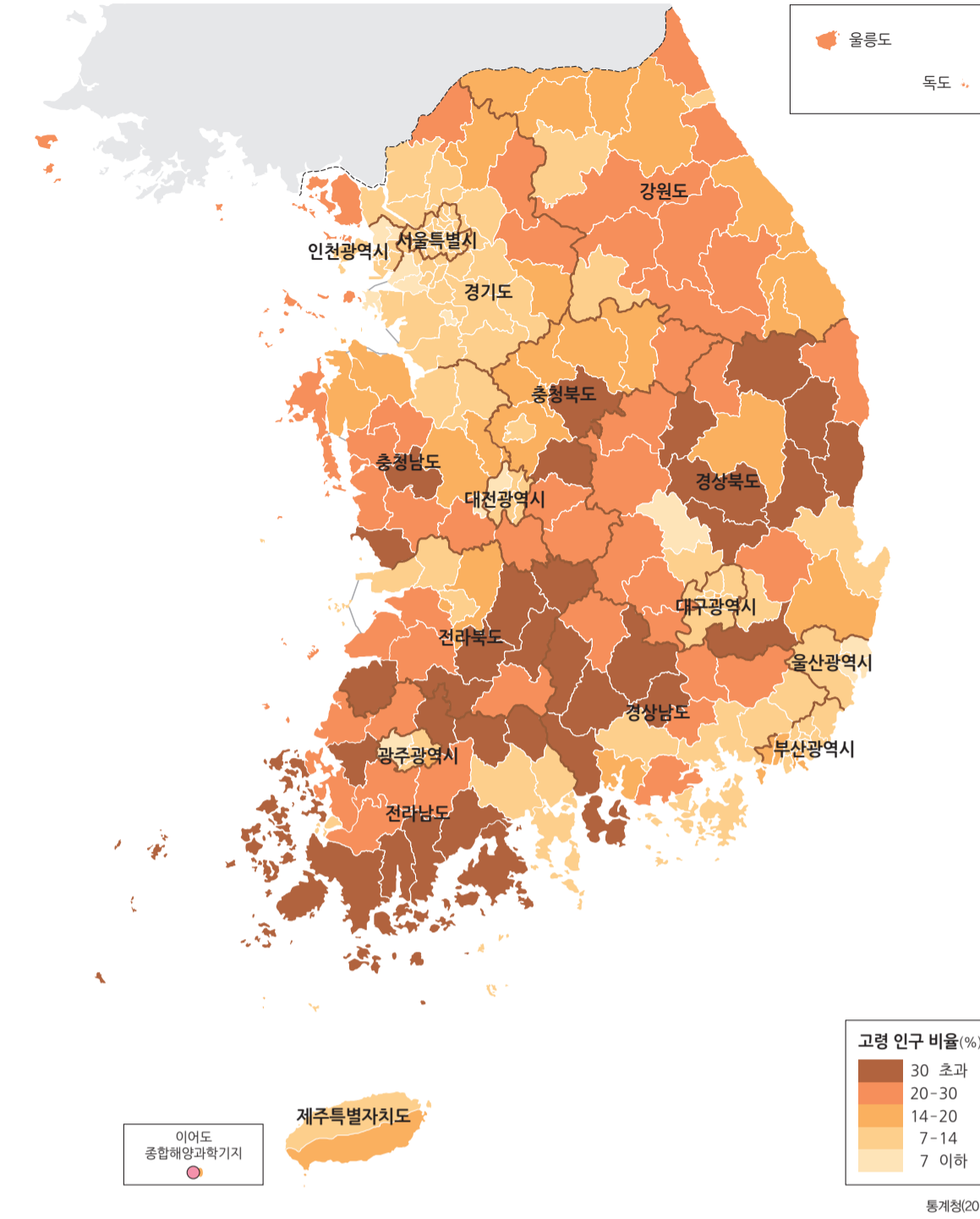
총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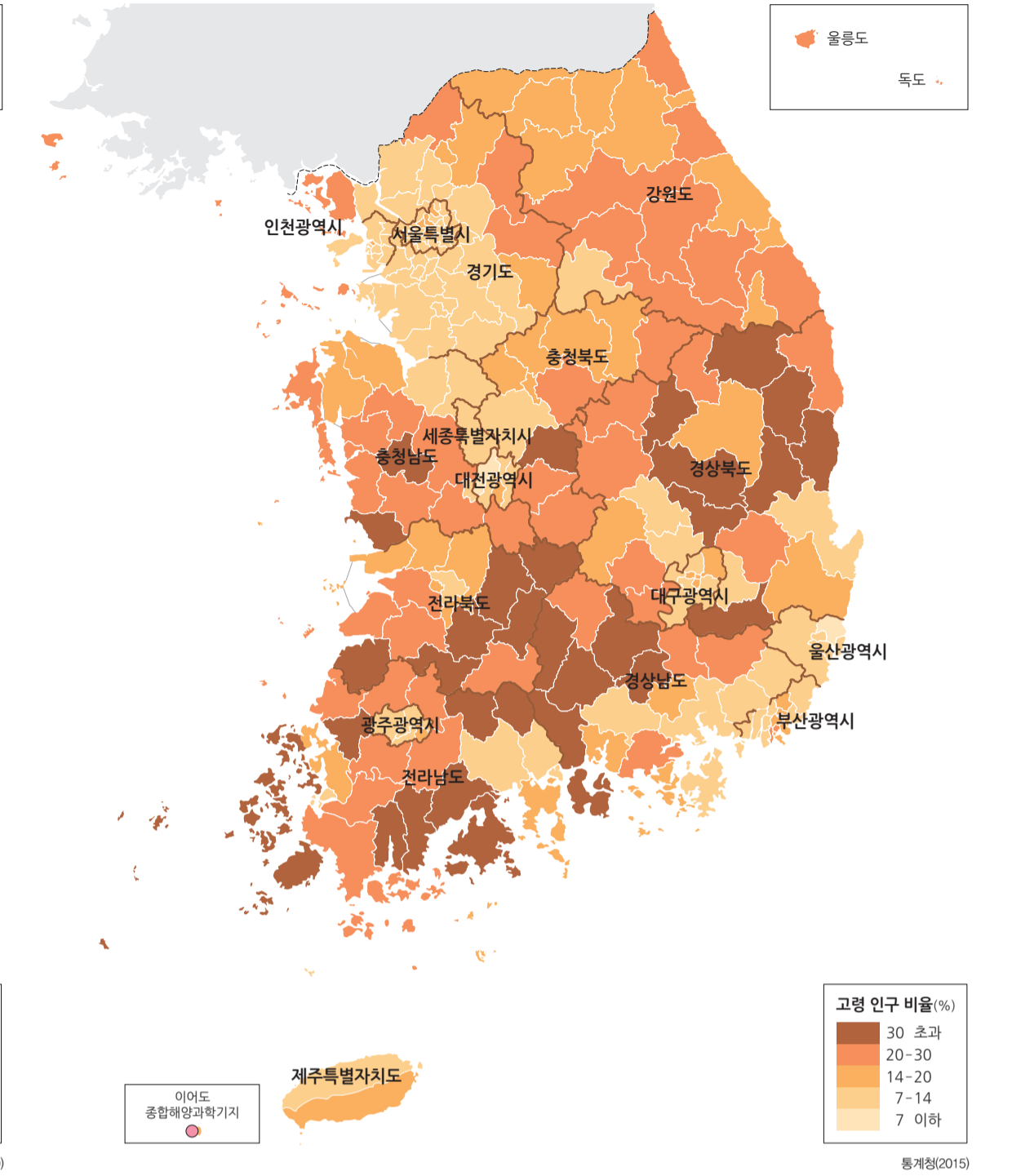
인구 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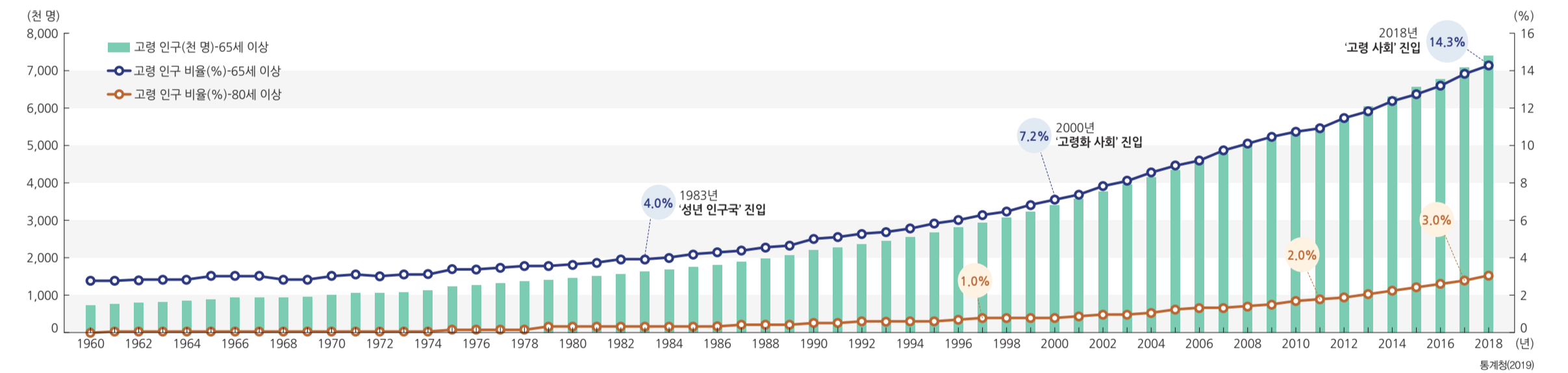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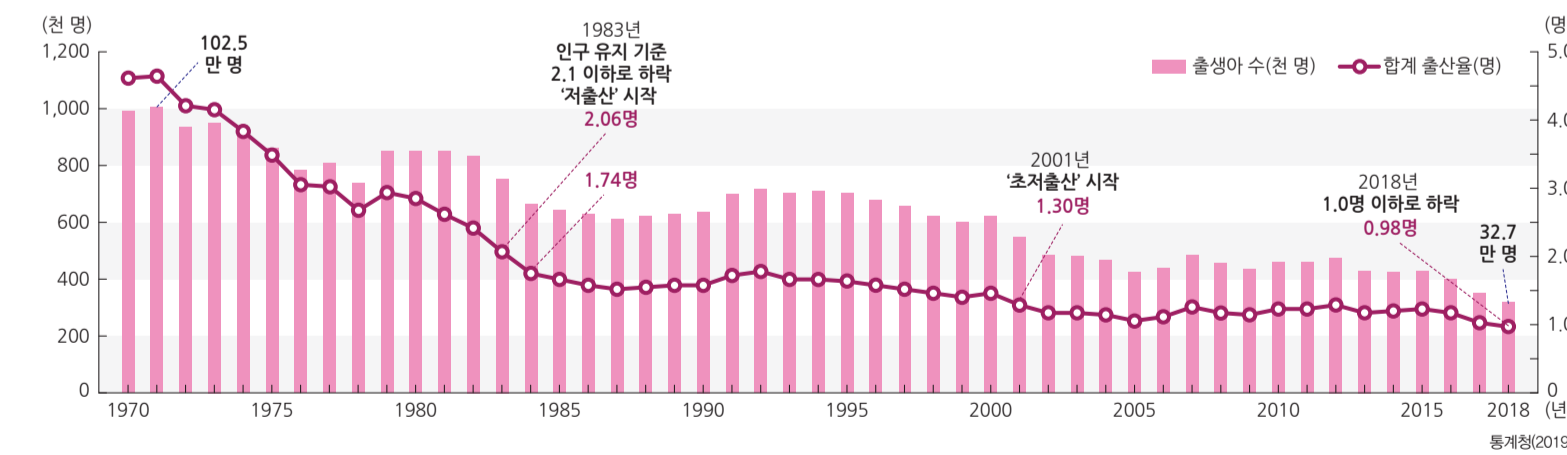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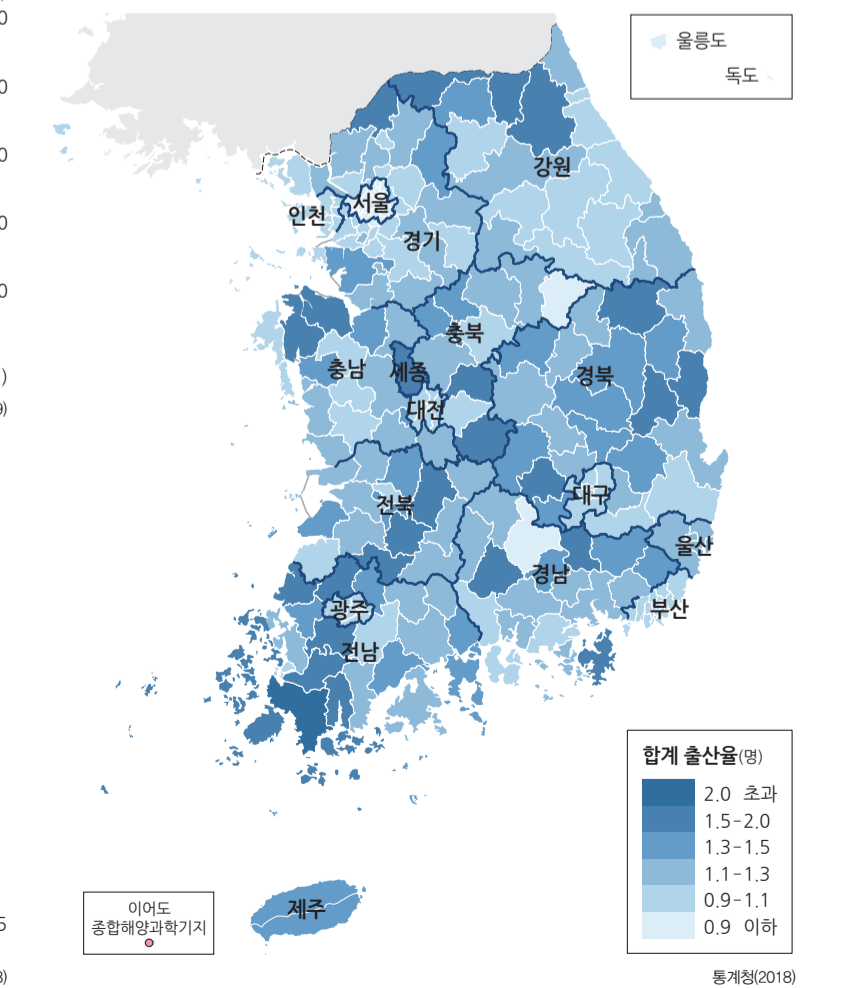
고령 인구 비율 변화



출산율 변화



합계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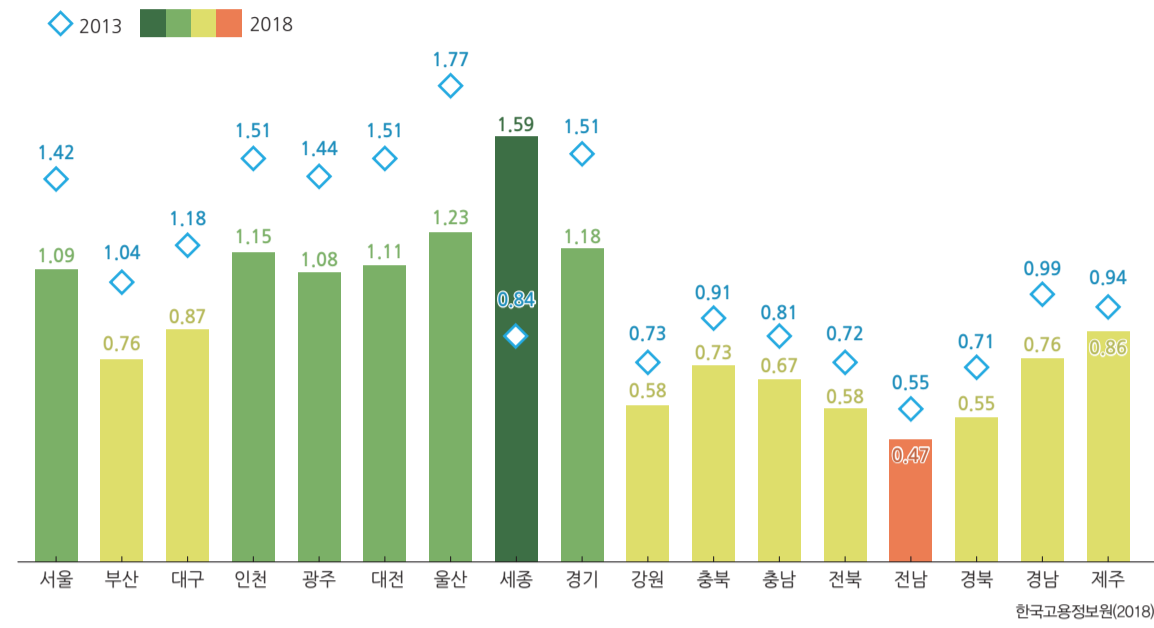
인구 고령화의 공간적 불균등

대한민국 인구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데, 농촌 인구는 도시 인구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 문제는 이미 사회 경제적 쇠퇴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소 도시와 농촌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수도권 지방 지역 사회의 상황은 젊은 인구의 유출로 인한 고령화 심화로 인해 더욱 심각하다. 지방 소멸 위험 지수는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서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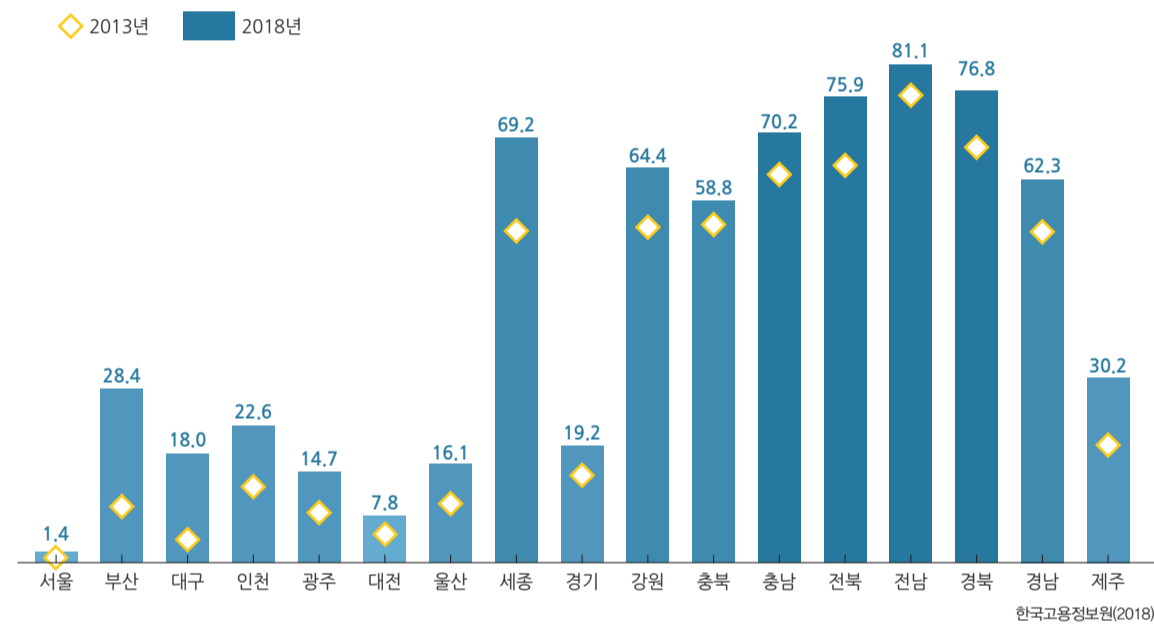
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지수가 0.5 미만일 경우 소멸의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래 지도를 살펴보면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젊은 층의 유출과 저출산 현상으로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적 성장과 양극화 확대로 인해 고령화의 속도가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농촌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미래에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는 등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요 대도시들도 이러한 위험에서 예외는 아닌데,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지속적인 팽창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다. 이렇게 주민 수가 감소하는 것은 신시가지와 인근 위성 도시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된 것이 큰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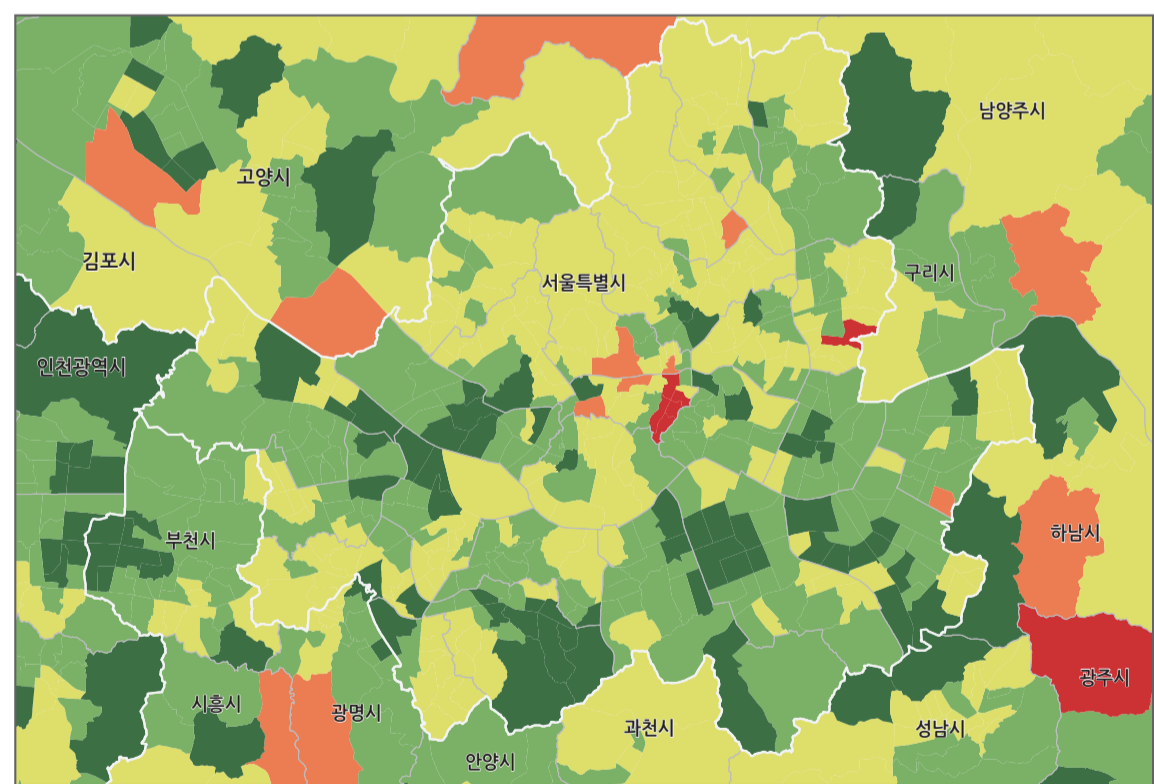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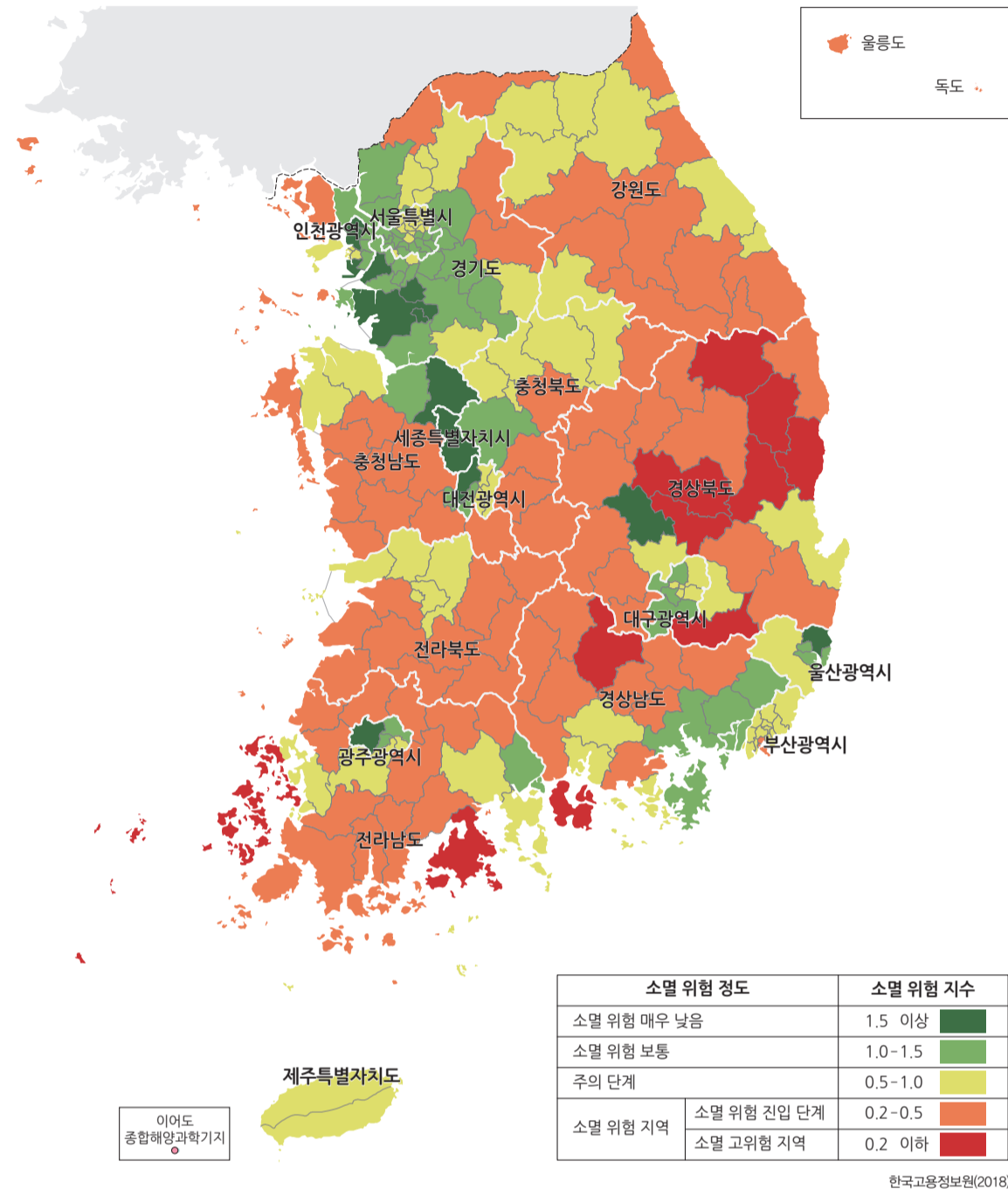
지방 소멸 위험 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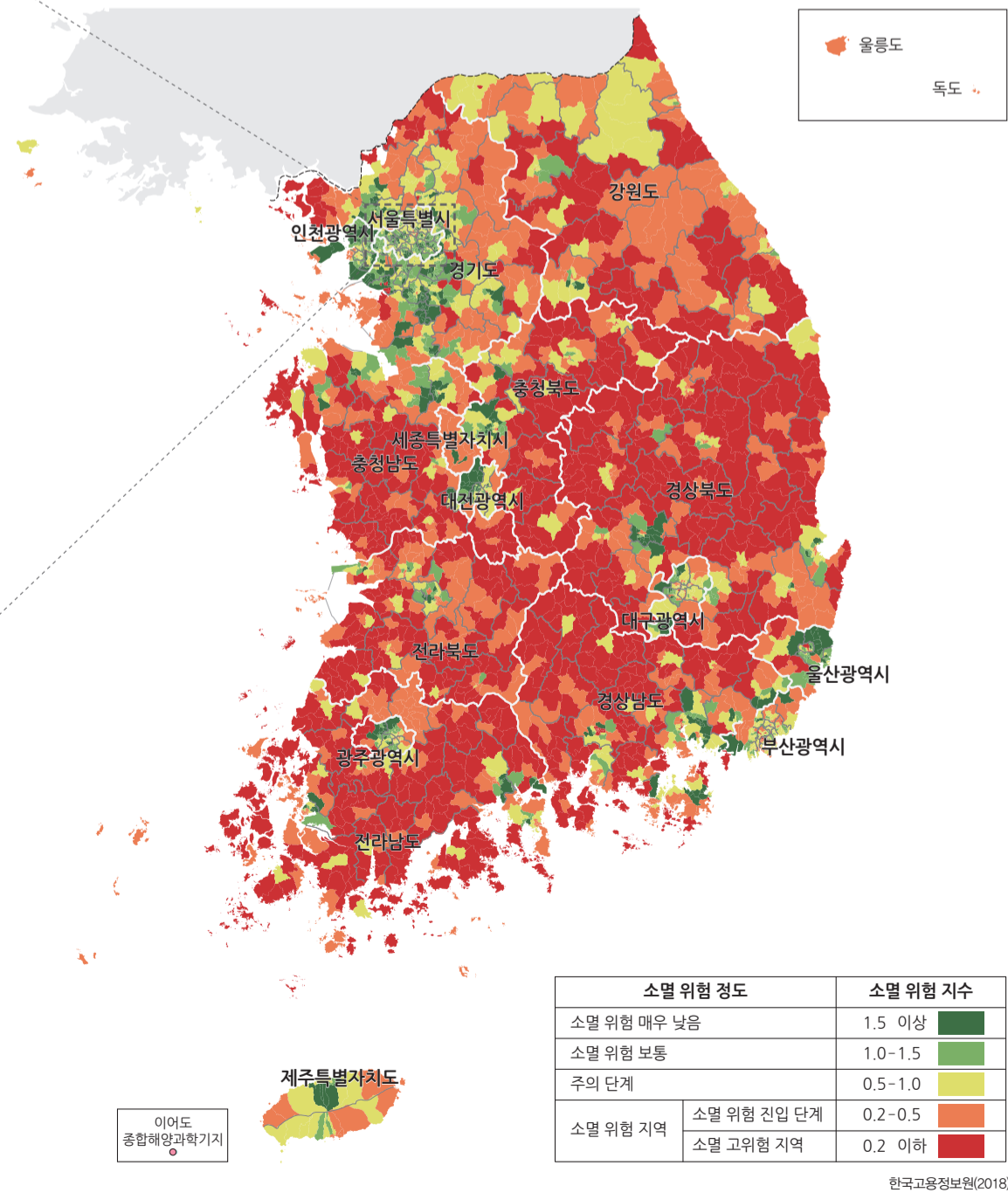
소멸 위험 읍·동 지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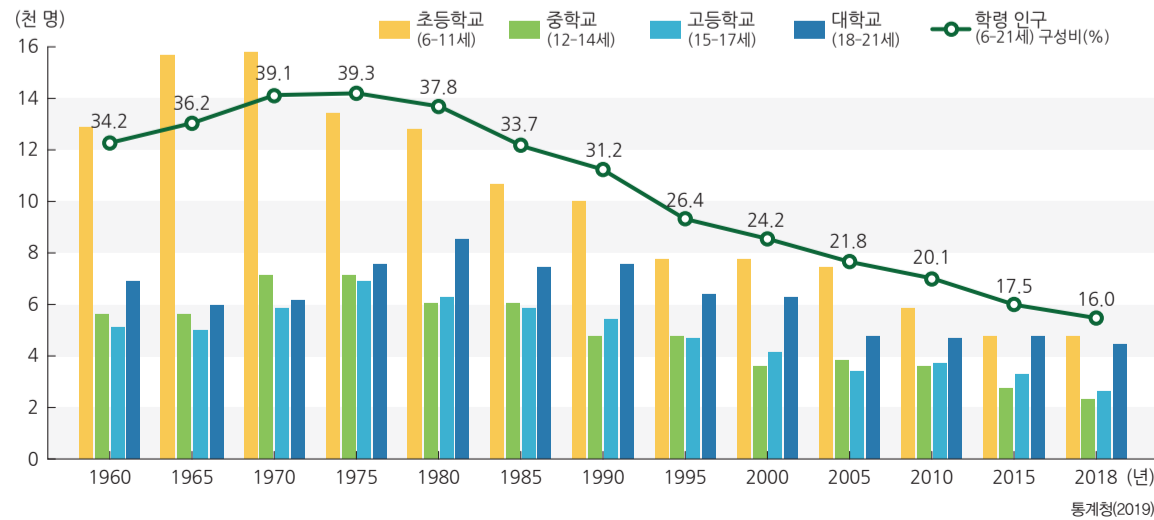
지방 소멸 위험 지수(시·군·구)



지방 소멸 위험 지수(읍·동)



학령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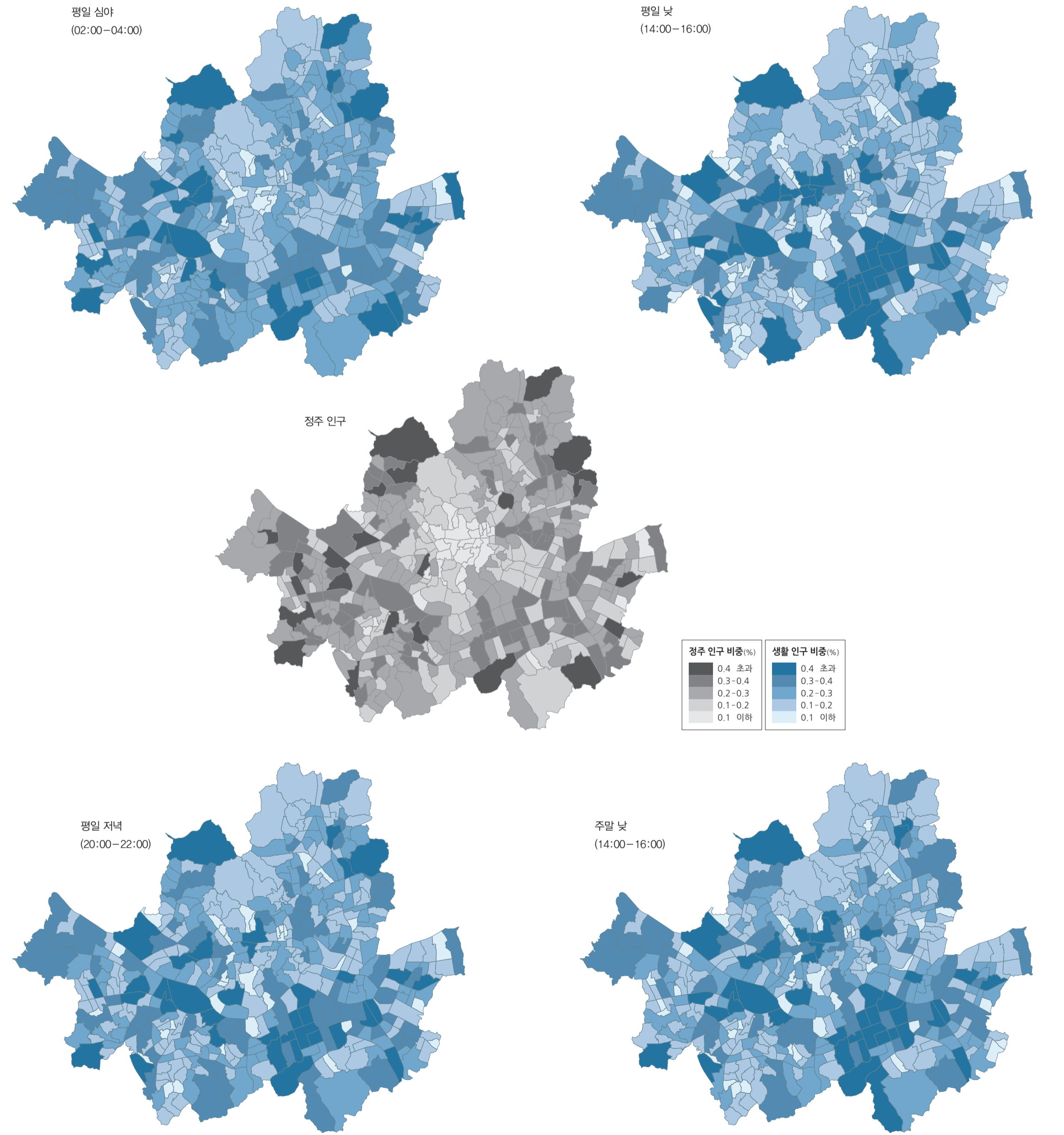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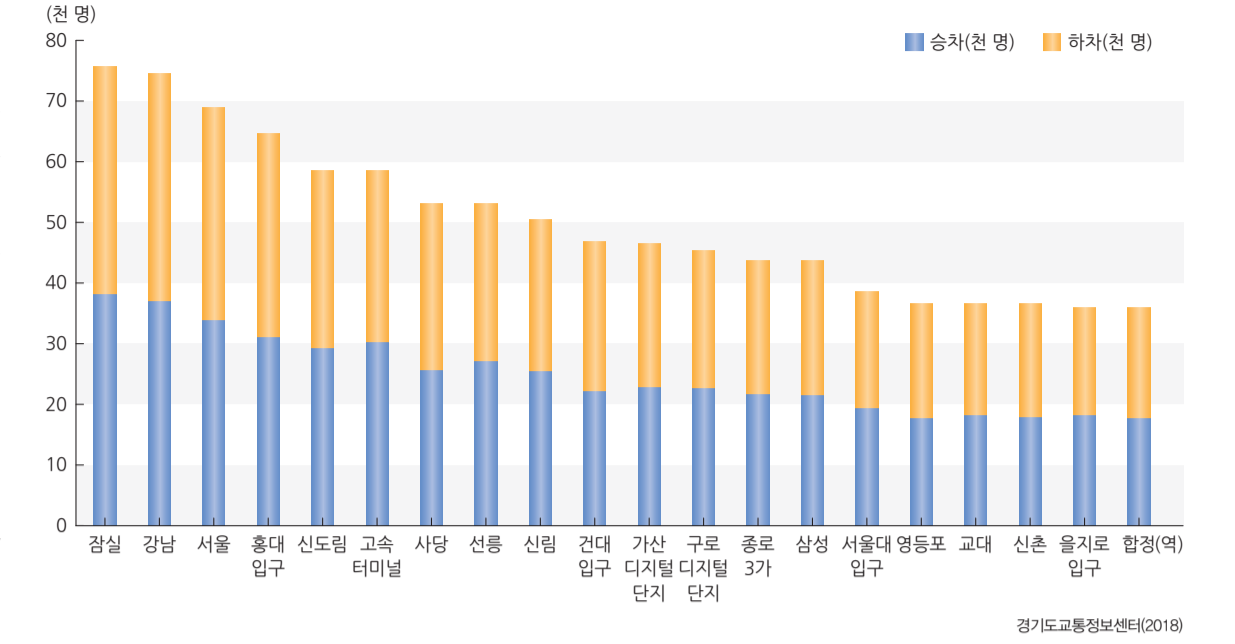


생활 인구

서울 생활 인구란 서울시와 KT가 공공 빅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한 서울의 특정 지역,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의미한다. 서울 생활 인구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공공 빅 데이터란 대중교통 이용 통계, 주민등록 인구 통계, 사업체 조사 자료, 건물 DB 등 서울시가 보유한 일련의 빅 데이터를 의미한다.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은 아동이나 노인 연령대는 행정동 수준에서 주민등록 인구와 비교하여 이를 추계하고 있기에, 실제 특정 지역이나 시점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 생활 인구 데이터를 살펴봄으로써,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자료에서 살펴볼 수 없는 인구의 시공간적 변화를 탐지할 수 있다. 그리고 생활 인구 데이터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수도권 인구의 분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활동하는 인구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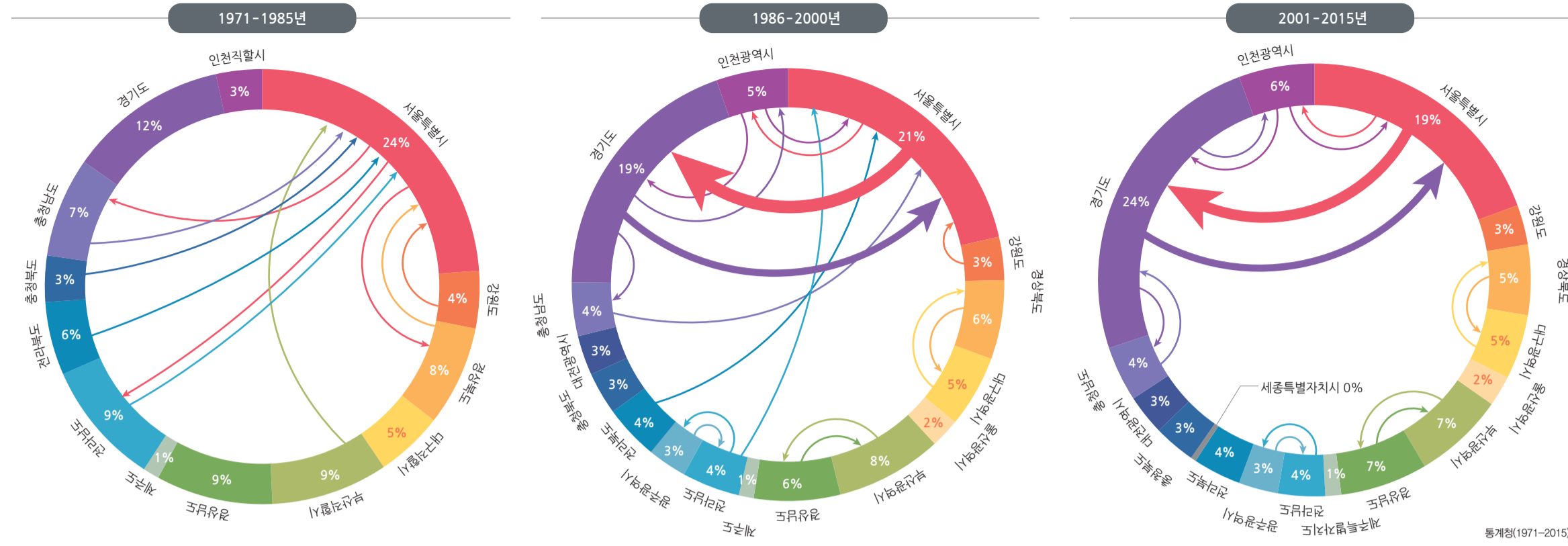
아래의 지도는 실제 주민등록 인구와 평일 심야(02~04시), 평일 낮(14~16시), 평일 저녁(20~22시), 주말 낮(14~16시) 시간의 인구 분포를 행정동 수준에서 단계 구분도로 나타낸 것이다. 주민등록 인구의 분포도에서 서울 도심 지역의 인구 공동화 패턴이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 인구의 심야, 낮 시간 인구의 비교를 통하여 서울시의 거주 지역과 중심 업무 지구 구분을 살펴볼 수 있다. 평일 저녁에는 도심부에 집중되었던 인구가 다시 분산되는 패턴이 나타났다. 이렇게 서울 생활 인구 자료의 시각화를 통하여 생활 공간으로서 서울의 역동적 인구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 이용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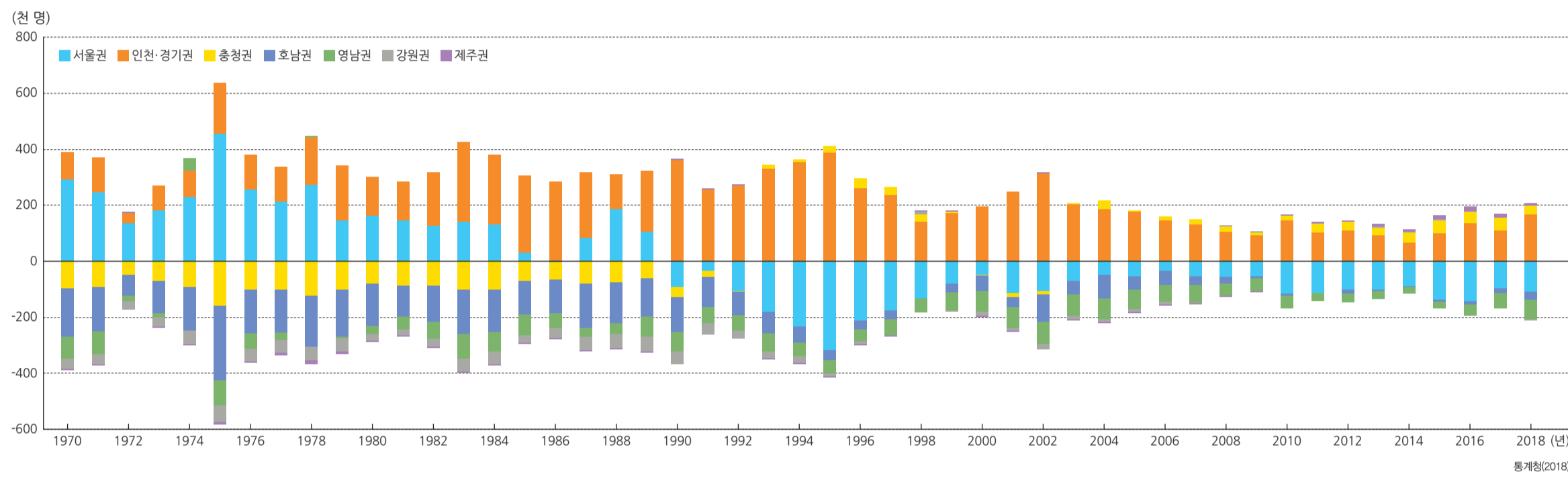


인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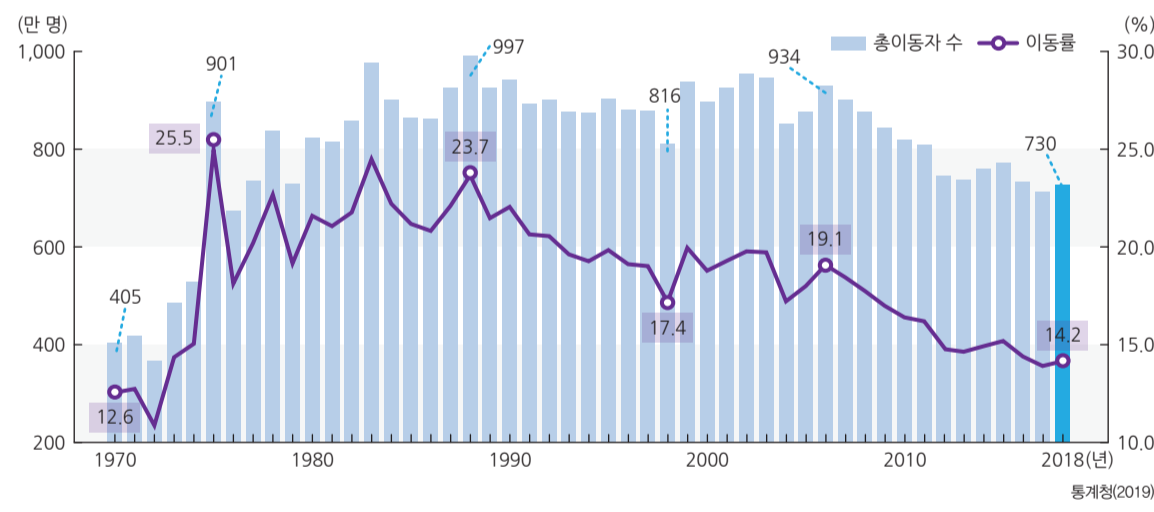
시기별 인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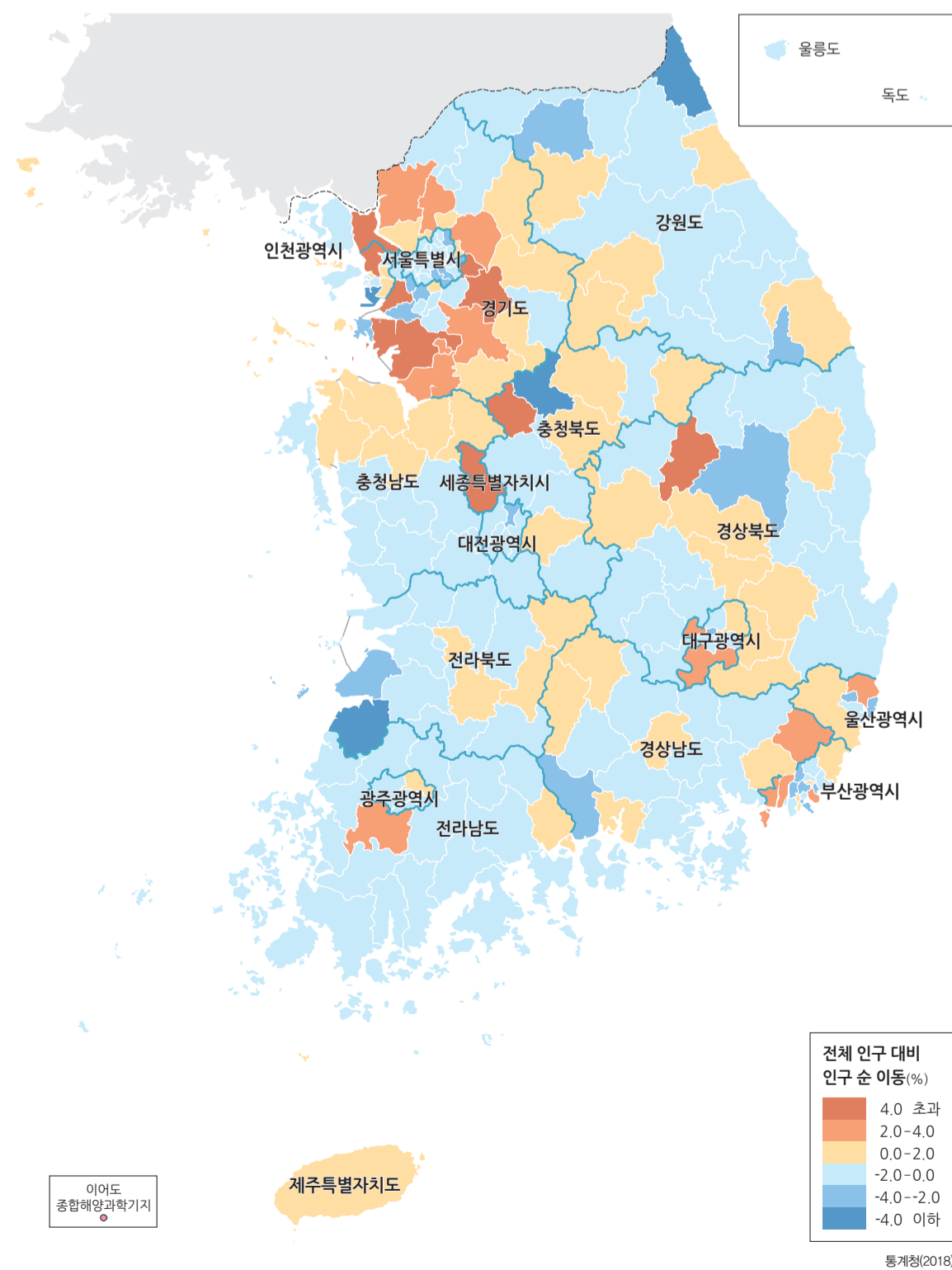
권역별 순 이동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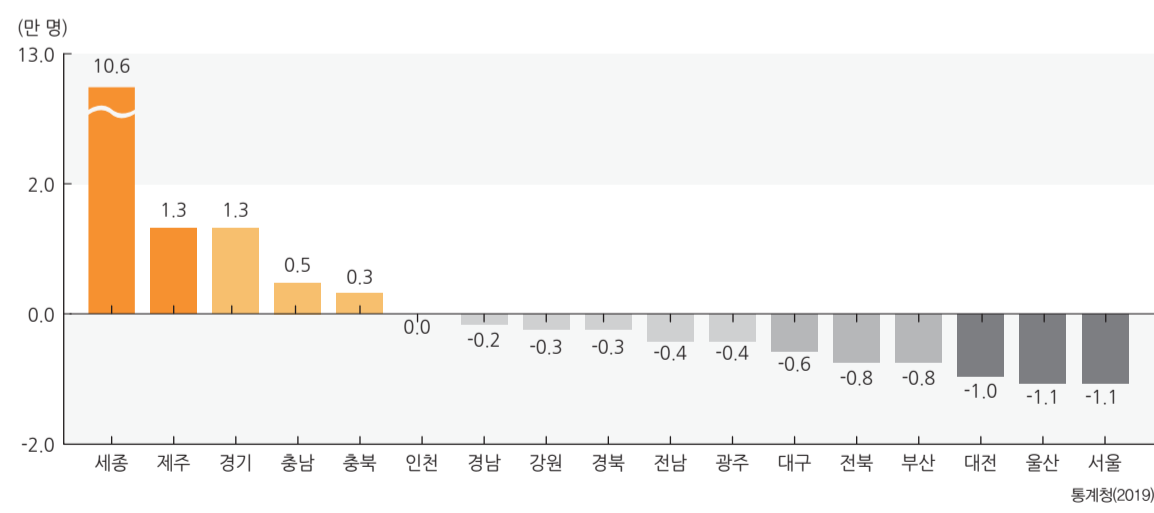
총이동자 수 및 이동을 추이



인구 순 이동(2018년)



시도별 순 이동률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인구 이동 규모를 살펴보면,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급격하게 늘어난 후 그 상승세가 1990년에 다소 둔화되었다가 2000년부터는 조금씩 줄어든다. 이는 인구 경주가 1990년대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구 이동의 방향, 즉 지역 간 유출과 유입의 분포는 거리 조락, 도시화, 교외화-역도시화 등의 특징을 시기별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거리 조락 측면보다는 도시화의 특징이 두드러졌으나, 이후 1990년대부터는 거리 조락의 특징이 크게 나타나고, 2000년에는 교외화와 역도시화 현상이 국지적으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구 이동의 특징들은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화, 수도권 집중, 그리고 영주 인구의 안정화 등 사회적 변화 추이를 시기별로 잘 나타내고 있다. 2010년의 지역별 인구 이동은 이동의 일반적인 원리인 거리 조락 측면 이외에, 각 지역이 다른 특정 지역들과 갖는 관계의 강도와 방향성도 드러낸다.

인구의 순 이동

